

<http://dx.doi.org/10.17703/JCCT.2025.11.1.193>

JCCT 2025-1-21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가 대학생의 학습역량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s of Learning Extracurricular Program Participation on Learning Competency of College Students

김경희*, 최주영**

KIM KYUNG HEE* and CHOI JOO YOUNG**

요약 본 연구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가 대학생들의 학습역량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교수학습센터가 중심이 되어 교내 시스템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였다. 이후 자발적인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총 158명이 선정되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이들이 제출한 참여 신청서에 따라 그룹을 구성하여 총 9주간 동안 협동학습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전,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학습 역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역량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학습 역량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학습역량의 하위요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모든 하위요인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습역량을 구성하는 8가지 세부 요인의 사전-사후 점수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6개의 세부 요인의 점수는 사전 점수에 비해 사후 점수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학생들의 학습역량 향상을 위한 논의에 대해 제시하였다.

주요어: 비교과 프로그램, 학습 공동체, 학습 역량, 학습자 중심 교육, 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the extracurricular program had an effect on improving the learning ability of colleg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 order to operate the program, the CTL took the lead and promoted it through the school system. Afterwards, a total of 158 students who voluntarily participated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forms they submitted, groups were formed and a cooperative learning extracurricular program was implemented for a total of 9 weeks. A survey on learning ability was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was implement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ost-scores of learning ability of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program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the pre-score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subfactors of learning ability for a specific analysis of learning ability, the post-scores of all subfactor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the pre-scores. Third, the pre- and post-scores of the eight detailed factors that constitute learning ability were compared. As a result, the scores of six detailed factors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the pre-scor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discussions were presented on activating extracurricular programs and improving students' learning ability.

Keywords: Extracurricular program, Learning community, Learning ability, Learner-Centered Education, College student

*정회원, 동신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조교수 (제1저자)

**정회원, 전남대학교 강사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10월 5일, 수정완료일: 2024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 2024년 12월 5일

Received: October 5, 2024 / Revised: November 14, 2024

Accepted: December 5, 2024

**Corresponding Author: qldkfzb2@naver.com, Chonnam

Univ, Korea

1. 서론

4차 혁명시대로의 대전환을 맞이하면서 대학은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며, 협업 능력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대학은 고등 교육 기관으로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 협력중심 교육, 시공간을 초월한 맞춤형 학습 체제를 도입하면서 교육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시키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개발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중요한 역할이다. 최근 대학은 역량 기반 교육을 제공하여 학생이 사회적 인재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핵심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하고 있다[1].

역량 기반 교육은 정규 교육 과정과 비교과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최근 비교과 과정의 양적,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정규 교육 과정의 한계[2], 다양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영향[3] 등이 있다. 이로 인해 각 대학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비교과 활동을 개발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비교과’ 활동은 학습자가 자발적, 선택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부여되지 않는 활동이다[4,5]. 학습자의 교실 안의 경험 뿐 아니라 교실 밖의 경험까지도 학습과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90년대부터 비교과 활동은 정규교육 과정과 함께 학습자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인식되며 그 가치와 중요성 및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다[6].

정규 교육과정만으로는 필요한 많은 역량(competences)을 습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비교과 활동과 프로그램의 참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6,7]. 비교과 활동의 참여는 참여 학생의 학업성취도(학점, 학업성과, 학습 등) 향상[8-11], 학교에 대한 소속감 증진, 학업 실패 및 중도 탈락률 감소에 기여[12], 학습 능력 및 학업 성과(outcome) 향상[13], 직업 능력 향상[14], 인지적, 심리적, 사회적 영역의 발달 [9,15], 학업 및 대학생활 만족 향상[16], 대인관계, 자기 이해, 대학생활 만족도[17], 의사소통능력 향상, 취업에 필요한 스킬(skill), 역량 향상[18-20], 진로 적응력 향상[21] 등의 상당히 많은 변인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 확인되었고, 대학교육 성과를 결정하는 예측 변인으로도 보고되었다[22]. 이외에도 대학 시절의 비교과 활동 참여는 직업 경력(successful business career)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Boone와 동료들은 성공한 기업 대표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기업의 대표들은 대학 시절 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23]. 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에 참여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과 비교했을 때 타인과의 상호 작용 능력이 더 우수하였으며[24], 유사한 맥락에서 비교과 활동의 참여는 참여 학생들의 리더십, 타인과의 상호작용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25].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대학에서의 비교과 활동들이 가져오는 교육적 성과들이 크며 가치롭다는 것을 보여준다[10,26].

대학의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운영되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습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학습상담, 학습공동체, 학습법 특강이었다[27]. 대학이 학습 관련 비교과 프로그램을 가장 활발히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더 이상 전공지식 습득을 잘하는 것만이 성공적인 대학 이후 삶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과거와는 다르게 최근 사회는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개인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적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28] 지식기반사회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각 개인에게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역량이란 급변하는 사회에서 개인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이다[29,30] 이러한 능력은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되는 능력이다[31]. 역량은 경험에 의해 만들어지고 학습을 통해 습득되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인간의 능력과 구분된다[24]. 교육은 인간 행동의 계획적인 변화로[32], 교육환경, 교육과정, 수업 설계를 포함하는 모든 교육 활동에는 학습자의 역량 변화가 추구되어야 한다. 최근 고등교육의 핵심 역량으로 리더십, 전공 분야에 대한 지식, 사고력,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의사소통능력 등이 제시되고 있다.

대학에서는 특정한 학습활동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요구되고 발휘되는 학습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으며, 동시에 평생학습의 관점에서도 필수적 역량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해 대학에서는 교수학습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학습역량에 주목하고 있다. 학습역량이란 학생이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자신이 학습한 내

용을 적용하거나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33]. 선행연구에 따르면, 양홍권(2015)의 연구에서는 학습 역량의 구성 요인으로 학업 비전, 학업 정체성, 인지 조절, 정서 조절, 학습 관리, 학습 환경 조성을 제시하였다[34]. 전영미 외(2016)의 연구에서는 학습 계획, 학습 실행, 학습 평가를 제시하였으며[35], 손원빈, 최화숙(2019)의 연구에서는 학습 인지, 학습 기능, 학습 태도를 제시하였다[36]. 김은영과 방상옥(2020)의 연구에서는 학습 인지, 학습 동기, 학습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학습 역량을 구성하는 요인은 연구자와 관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28]. 학습 역량은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 중 하나이며[37] 대학생의 학습역량은 스스로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높은 성취를 경험하게 하는데 필요한 능력이다[34]. 대학생 개인의 학업 성취는 대학 생활의 만족도와 이어지고 이는 대학 교육의 성과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간주되기도 한다[38,39] 이 때문에 대학에서는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운영 중이다[38].

그 중에서도 학습공동체는 교수학습지원센터 활성화로 인한 대표적인 비교과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학습공동체는 참여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를 특징으로 하고, 그 안에서 학습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하는 학습활동을 수행한다[40].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학업에 대한 성취를 얻고 더불어 학습공동체의 다른 집단원들과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류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협력적 문제해결 능력은 미래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할 또 다른 핵심 역량 중 하나이다[41].

이에 해당 연구에서는 학습공동체 형식의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 능력 전체의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가? 둘째,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역량의 하위요인(학습 인지, 학습 동기, 학습 행동)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가? 셋째,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 역량의 세부요인 향상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절차

본 연구는 A지역 소재 대학의 모든 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목적은 해당 비교과 과정을 통하여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역량 함양을 강화하는 것이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자 모집은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진행되었다. 먼저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을 공고 후 교내 시스템을 통해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추가로 학과 게시판에 프로그램 홍보물과 신청서를 배포하여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여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은 총 184명이었으며, 이후 교내 기관에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학생들에게 최종 참여 의사와 참여 방법에 대해 안내한 결과 최종으로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은 158명이었다. 선정된 학생들에게는 사전에 온라인 방식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9주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2. 연구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은 2023학년 2학기 동안 실시되었으며 총 158명이 참여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구분		N	%
성별	남	41	25.9
	여	117	74.1

학년	1학년	36	22.8
	2학년	28	17.7
	3학년	45	28.5
	4학년	49	31.0
단과 대학	공과대학	9	5.7
	보건복지대학	16	10.1
	사회과학대학	102	64.6
	에너지융합대학	24	15.2
	한 의과대학	7	4.4
전체		158	100.0

3.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김은영, 방상욱(2020)이 타당화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28]. 해당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5점인 ‘매우 그렇다’부터 1점인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되었다. 해당 측정 도구는 3가지 하위 요인과 8개의 세부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학습 인지, 학습 동기, 학습 행동의 3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습 인지 영역은 문제해결 능력(문제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방법을 찾아보고 문제해결 과정에 적용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력(문제 상황을 다양한 관점으로 평가하고 분석하는 사고력), 학습 전략(학습상황에서 적절한 인지 전략을 사용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학습 동기는 자기효능감(자신의 행동을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판단), 학업 열정(학습에 대한 의지와 욕구 판단), 학습 끈기(학습 상황에서 성실히 노력을 유지하는 능력), 흥미 유지(학습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유지하는 능력)를 포함하고 있다. 학습 행동은 학습태도(학습을 위해 다양한 학습 행동을 하는 능력), 도움 및 자원 활용(학습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다양한 도움과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 시간과 학습 환경 관리(학습 시간을 잘 관리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능력)를 포함하고 있으며 총 41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당 연구에서의 측정 도구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도구의 신뢰도

Table 2. Reliability of measurement tool

하위 요인	세부 요인	문항 번호	신뢰도
학습 인지	문제해결능력 및 비판적 사고	1-6	.83
	학습 전략	7-10	.77
학습 동기	학업효능감	11-17	.91
	학습끈기 및 태도	18-22	.82
	학습 흥미 유지	23-27	.91
	학업 열정	28-32	.91
학습 행동	학습 환경 관리	33-36	.69
	학습 시간 관리 및 목표 설정	37-41	.80
전체			.95

3. 자료 분석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158명을 대상으로 사전, 사후 검사를 실시하였다. 사전 검사는 프로그램 시작 전에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사는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에 일괄적으로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spss 20.0을 활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분석,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대응 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습 역량과 학습 역량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학습역량의 사전-사후 점수의 변화는 표 3에 제시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습 역량 사전 점수는 3.34, 사후 점수는 3.83으로 나타났다.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t=-3.40, p<.01$). 학습 인지의 사전 점수는 3.89, 사후 점수는 4.02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35, p<.01$). 학습 동기의 점수는 사전 점수가 3.34, 사후 점수가 3.63,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4.90, p<.001$). 학습 역량의 경우 사전 점수는 3.68, 사후 점수는 3.86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08, p<.01$).

표 3.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습 역량에 미치는 효과

Table 3. The Effects of Extracurricular Programs on Learning Competency

구분	사전		사후		t
	M	SD	M	SD	
학습 인지	3.89	0.58	4.02	0.74	-2.35**
학습 동기	3.34	0.78	3.63	0.89	-4.90***
학습 행동	3.68	0.73	3.86	0.76	-3.08**
학습 역량	3.34	0.62	3.83	0.74	-3.40**

** $p<.01$, *** $p<.001$.

2.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습역량의 세부 요인에 미치는 영향

학습역량의 세부요인으로는 문제해결 능력 및 비판적 사고, 학습 전략, 학업효능감, 학습 끈기 및 태도, 학습 흥미 유지, 학업 열정, 학습 환경 관리, 학습시간 관리 및 목표설정이 있다. 세부 요인의 사전-사후 점수의 변화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문제해결 능력 및 비판적 사고의 사전 점수는 4.05, 사후 점수는 4.11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t=-0.88, p>.05$). 학습전략의 사전 점수는 3.88, 사후 점수는 4.04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2.37, p<.01$). 학업 효능감의 사전 점수는 3.53, 사후 점수는 3.82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4.84, p<.001$). 학습끈기 및 태도의 사전, 사후 점수는 각각 3.24, 3.53으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4.58, p<.001$). 학습흥미 유지의 사전 점수는 3.21, 사후 점수는 3.5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4.19, p<.001$). 학업 열정의 경우 사전 점수는 3.34, 사후 점수는 3.59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38, p<.01$). 학습 환경 관리의 경우 사전 점수는 3.93, 사후 점수는 4.02로 나타났다.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t=-1.41, p>.05$). 마지막으로 학습 시간 관리 및 목표 설정의 사전 점수는 3.49, 사후 점수는 3.77로 나타났으며, 사전-사후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t=-3.71, p<.001$).

표 4. 비교과 프로그램이 학습 역량의 세부요인에 미치는 효과

Table 4. The effect of extracurricular programs on the sub-factors of learning ability

구분	사전		사후		t
	M	SD	M	SD	
문제 해결 능력 및 비판적 사고	4.05	0.65	4.11	(0.75)	-0.88
학습전략	3.88	0.79	4.04	0.85	-2.37**

학업 효능감	3.53	0.81	3.82	0.90	-4.84***
학습끈기 및 태도	3.24	0.89	3.53	0.92	-4.58***
학습 흥미 유지	3.21	0.94	3.55	0.95	-4.19***
학업 열정	3.34	0.93	3.59	0.91	-3.38**
학습 환경 관리	3.93	0.78	4.02	0.79	-1.41
학습시간관리 및 목표설정	3.49	0.88	3.77	0.87	-3.71***

** $p < .01$, *** $p < .001$.

IV. 토론

해당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대학에서 운영 중인 학습 공동체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들의 학습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에서 활성화 되어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습역량과 하위 요인, 세부 요인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비교과 프로그램은 전공 지식을 위주로 진행되는 교과 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친 중심의 학습 활동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적 교육과정으로 등장하여 현재 모든 대학에서 학생들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42,43]. 그 중에서도 해당 연구에서 살펴본 학습 공동 비교과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식 중 하나이다[28,44]. 학습 공동체는 대표적인 학생 중심의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학습 성과나 생활 만족도 향상에 도움이 된다[11].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습 공동체 운영이 대학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습 성과 뿐만 아니라 학습 태도, 학습 흥미 유지 참여 학생들 간의 사회성 증진, 유대감 형성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44].

둘째, 학습역량의 하위 요인 중 학습 인지는 비교과 프로그램 실시 이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습 인지를 구성하는 세부 요인을 살펴본 결과 학습전략은 사전-사후 점수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문제해결능력 및 비판적 사고의 사전-사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과 활동의 참여가 학습능력 및 학업성과 향상, 인지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결과[9,13]와 일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 인지를 구성하는 문제해결능력 및 비판적 사고는 학습전략 향상보다는 더 심화된 능력으로 단기간에 향상되기 어려운 부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교과 프로그램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심화된 학습 인지 강화를 위해서는 1년 단위의 지속적·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습 동기는 모든 하위요인과 세부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교과 활동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발견, 학업지속을 예측하는 변인이라는 결과[16,17]와 일치한다.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와 학습 동기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대학에서는 단계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동기 수준을 점검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습 행동에서는 학습시간관리 및 목표설정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학습 환경 관리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 환경과 학습과의 관련성, 학습양식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파악된다. 더불어 학습 환경은 개개인의 요구에 따라 학습 환경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대학 차원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는 교육적 환경을 제공할 필요도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 중 해당 연구에서는 학습 공동체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서만 살펴보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학습 공동체 이외에도 대학에서 운영 중인 다른 형태의 비교과 프로그램의 현황과 효과성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해당 연구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가 대학생들의 학습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이러한 프로그램의 참여 및 효과성의 차이가 학습자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강조되고 있는 학습자 특성에 맞춘 대학 차원의 교육과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학습자 특성에 따라 프

로그래밍의 참여 및 효과성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해당 연구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역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다양한 영역의 효과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가 축적된다면 비교과 프로그램의 다양한 효과에 대해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해당 연구는 A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일반화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로 연구 대상을 좀 더 확장하여 전국의 대학에서 실시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현황과 효과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학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대학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와도 직결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가 축적된다면 현재 각 학교의 특성과 상황에 맞추어 개발 및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좀 더 잘 진행되기 위한 국가 단위의 기준이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중 대학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 되어 있는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학습역량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학습역량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과 세부 요인들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는 프로그램의 참여 학생들의 학습역량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는 학습역량의 하위 요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학생들의 학습 인식, 학습 동기, 학습 행동의 사후 점수가 사전 점수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비교과 프로그램의 참여는 일부 학습역량의 세부 요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역량의 세부 요인은 학습역량에 필요한 세부 영역으로 문제해결능력 및 비판적 사고, 학습 전략, 학업 효능감, 학습 끈기 및 태도, 학습 흥미 유지, 학업 열정, 학습 환경 관리, 학습 시간 관리 및 목표 설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8개의 세부 영역 중 문제 해결 능력 및 비판적 사고, 학습 환경 관리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영역의 사후 점수는 사전 점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해결 능력 및 비판적 사고, 학습 환경 관리의 영역의 사후 점수도 사전 점수에 비해 향상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References

- [1] J. Y. Choi, "An Analysis of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 of the University Students Taken Learning Capability Enhancement Program," Keimyung University, Master thesis, February, 2018.
- [2] M. N. Lee and J. W. You, "A case study of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extracurricular activity management system in a college by applying gamifica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Vol.22, No.4, pp. 805-834, December, 2016. DOI : 10.15833/KAFEIAM.22.4.805
- [3] C. N. Park and W. H. Jung, "Study on the effects of Non-subject Educational Programs Influencing the Core Competency of University Students - Focusing on the Case of K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1, No.1, pp. 39-71, February, 2017.
- [4] F. C. Lunenburg and A. C. Ornste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Concepts and practices," Cengage Learning, 2011.
- [5] K. R. Bartkus, B. Nemelka, M. Nemelka and P. Gardne, "Clarifying the Meaning of Extracurricular Activity: A Literature Review of Definitions," *American Journal of Business Education*, Vol.5, No.6, pp.693-704, December, 2012.
- [6] E. T. Pascarella and P. T. Terenzini, "How College Affects Students: A Third Decade of Research(Volume 2)," Jossey-Bass, 2005.
- [7] R. M. Felder and L. K. Silverman, "Learning and teaching styles in engineering education," *Engineering*

- education*, Vol.78, No.7, pp. 674–681, June, 1988.
- [8] Y. R. Huang and S. M. Chang, “Academic and cocurricular involvement: Their relationship and the best combinations for student growth,”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45, No.4, pp.391–406, August, 2004.
- [9] E. Massoni, E, “Positive effects of extra curricular activities on students,” *Essai*, Vol.9, No.1, pp.84–87, January, 2011.
- [10] R. A. Bakoban and S. A. Aljarallah, S. A.,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Their Effect on the Student’s Grade Point Average: Statistical Study,” *Educational Research and Reviews*, Vol.10, No.20, pp.2737–2744, October, 2015.
- [11] J. Y. Choi, P. S. Shin, Y. K. Park, D. Y. Kim, J. W. Park, Y. K. Yoon and W. Y. Kim, “A Case Study on Management Systems for Non-curriculum Courses to Develop a Proper Management System for Non-curriculum Courses,”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ol.14, No.4, pp. 69–77, July, 2011, DOI : 10.18108/jeer.2011.14.4.69
- [12] J. D. Finn, “School engagement & students at risk.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 Washington, 1993
- [13] G. D. Kuh, “In their own words: What students learn outside the classroom,”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30, No.2, 277–304, October, 1993.
- [14] J. Wood, J., S. Little., L. Goldring, L and L. Jenkins, “The confidence to do things that I know nothing about’ - skills development through extra-curricular inquiry activity,” *Journal of Learning Development in Higher Education*, Vol.3, pp.2–21, March, 2011.
- [15] C. Ahren. “Disentangling the unique effects of cocurricular engagement on selfreported student learning outcomes,” Indiana University, Doctoral thesis, March, 2010.
- [16] A. M. White and C. T. Gager, “Idle hands and empty pockets? Youth involvement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social capital, and economic status,” *Youth & Society*, Vol.39, No.1, pp.75–111, July, 2007.
- [17] K. L. Godbey and M. M. Courage“ Stress-management program: intervention in nursing student performance anxiety,”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Vol.8, No.3, pp.190–199, June, 1994.
- [18] G. Clark., Marsden, R., J. D. Whyatt., L. Thompson and M. Walker, “‘It’s everything else you do...’: Alumni views on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employability,” *Active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Vol.16, No.2, pp.133–147, February, 2015
- [19] O. B. Kim and H. J. Kim,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University Life Experiences of Students on Academic Probation,”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8, No.2, pp. 379–389, February, 2018, DOI : 10.35873/ajmahs.2018.8.2.038
- [20] H. W. Kim and S. Y. Kang, “Case Study on the extracurricular programs for enhancing core competencies of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8, No.2, pp. 337–357, January, 2018. DOI : 10.22251/jlcci.2018.18.2.337
- [21] S. H. Hwang, N. H. Joo and H. N. Cho, “Exploration on Metacognition and Career Adaptability in Participants of College Extracurricular Club Activ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3, No.1, pp. 293–320, February, 2019.
- [22] S. H. Bae and H. J. Kim, “Influential Factors for the Academic Challenge of University Students: Mutual Impact of Learning Supportive Environment, Student-Faculty Interaction, and Active and Collaborative Learning,”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21, no.4, pp. 201–225, November, 2013.
- [23] L. E. Boone, L. E., D. L. Kurtz and C. P. Fleenor, “CEOs: Early signs of a business career,” *Business Horizons*, Vol.31, No.5, pp.20–24, October, 1988.
- [24] D. S. Rychen and L. H. E. Salganik, “Key competencies for a successful life and well-functioning society,” Hogrefe Publishin, 2003.
- [25] Chia, Y. M, “Job offers of multi-national accounting firms: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academic performance,” *Accounting Education*, Vol.14, No.1, pp. 75–93, March, 2005.
- [26] A. N. Han, “The Operation and Performance on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 D University,”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30, No.4, pp. 111–138, November, 2017.
- [27] E. Y. Kim, “A Study on the Analysis of Learning Support Programs and Development Plans for

- Centers for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Universitie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5, No.2, pp. 101–120, February, 2019, DOI : 10.24159/joec.2019.25.2.101
- [28] E. Y. Kim and S. O. Bang,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Learning Competence Scale for College Students : Focused on the Evaluation of Extracurricular Program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6, No.3, pp. 437–460, June, 2020. DOI : 10.24159/joec.2019.25.2.101
- [29] A. N. Kim and B. S. Lee, “An Analytic Study of Identifying Personal and Institutional Influences on the Perceived Development of Core Competencies of College Students,”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Vol.30, No.1, pp. 367–392, April, 2003
- [30] M. W. Seo, “The Logic of Hierarchical Linear Model and its Application: an Analysis of the Effects of University Education on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Vol.16, No.2, pp. 43–63, November, 2003,
- [31] R. White,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Vol. 66, pp.279–333, October, 1959.
- [32] B. M. Chung, “Education & Pedagogy”, Seoul: Baeyoungsa
- [33] R. L. Colby, “Competency-based education: A new architecture for K-12 schooling,” Harvard Education Press, 2019.
- [34] H. K. Yang, “An Exploratory Case Study On the Honors Level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Competenc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Vol.21, No.1, pp. 103–140, February, 2015, DOI : 10.24159/joec.2015.21.1.103
- [35] Y. M. Jeon, J. S. Cho and K. R. Kim, “A Study on the effect of LMS on the self-regulated learning competency and learning satisfaction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Educational Information and Media*, Vol.22, No.1, pp. 55–84, March, 2016. DOI : 10.15833/KAFEIAM.22.1.055
- [36] W. B. Son and H. S. Choi, “Development of Learning Competency Test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12, pp. 907–930, June, 2019, DOI : 10.22251/jlcci.2019.19.12.907
- [37] H. S. Shin, “Analysis on structural relationship of learning motivation, academic emotion, learning outcome, and learning persistence on the extra-curricular for learning competences,” Konkuk University, Doctoral thesis, August, 2018.
- [38] H. J. Kim, “Effects of Non-curriculum Learning Community Program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6, No.5 pp. 143–152, May, 2016. DOI : 10.35873/ajmahs.2016.6.5.014
- [39] M. K. Sung, “Identifying University Students’ Learning Competencies and Suggesting Strategies to Develop a Learning Program to Enhance Competencies,”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February, 2015, vol.11, no.1, pp. 171–188, 2015.
- [40] D. L. Rogers and L. M. Babinski, “From isolation to conversation: Supporting new teachers’ development,” New York: Suny Press, 2002.
- [41] K. H. Kim and J. Y. Choi, “A Study on the Learning Community Participation According to Learner Characteristics,”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9, No.2, pp. 199–206, March, 2023.
- [42] R. Lee. “Discussion on Development Direction of Out-of-classroom Activities in Universit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Vol.31, No.4, pp. 155–182, November, 2018,
- [43] J. M. Yang, “The Effect of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Adaptation to College life on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Undergraduates,”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Vol.13, No.4, pp. 71–93, August, 2019.
- [44] M. H. Yeom, S. H. Park and J. W. Oh, “The Effects of Learning Communities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n South Korea,”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30, No.2, pp. 207–232, July, 2012.